

해외출장(헨트, 파리) 요약

부서 : 교통시스템연구실

자료제공 : 이신혜

작성일 : 2019년 7월 30일

게시요망일 : 2019년 8월 1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헨트시와 파리의 주차정책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출장 목적 및 일정

- 목적>
 - 벨기에 헨트 도심의 주차정책과 프랑스 파리의 주차정책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출장의 목적임
- 일정>

일 자	활 동 지 역	방 문 기 관	업무수행내용
6.27 (목)	서울/헨트	-	- 이동 (서울 → 헨트)
6.28 (금)	헨트	헨트대	- 헨트대 방문 관계 전문가 면담
6.29 (토)	헨트	-	- 헨트 중심지 주차관련 현장조사
6.30 (일)	헨트/파리	-	- 이동 (헨트 → 파리) - 파리 도심 주차관련 현장조사
7.1 (월)	파리	OECD 방문	- 관계 전문가 면담
7.2 (화)	파리	파리시청	- 관계 전문가 면담
7.3-7.4 (수-목)	파리/서울	-	- 이동(파리 → 서울)

2) 정교하게 운영되는 헨트시의 주차정책

- 헨트시의 주차정책은 매우 정교하게 운영되는데, 'Push & Pull' 정책으로 명명됨.

<헨트시의 Push 주차정책>

- 주차용량을 결정하는 시스템. 주차비율에 대한 제한조치가 이루어지면 거주민도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하여 주차요금 및 운영방안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유료주차구역의 확대
 - 파란카드 주차구역을 유료주차구역으로 변경하는 정도
 - 노면주차 및 비노면주차비율의 증가
 - 도심내 특정지역에 한해서는 최대주차가능시간 제한.
 - 거주민을 위한 주차구역은 오직 거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도에서만 공급해야 함.
 - 주차정책 및 운임징수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증대: IT기반의자동화시스템설립, 온라인 서비스기반의 거주자주차 어플리케이션 이용강화, 주차통제에 대한 최적화실시 등

<헨트시의 PULL 주차정책>

-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이용 활성화정책
 - 자동차공유 제도확대 및 관련프로젝트 추진
 - 밤시간대에 대한 대중교통운영 확장
 - 도심내 이동성 관리담당공무원 및 기업의 이동성 관리책임자 선정.
 - 도심내 특정지역에 대한 자전거 공유시스템
 - 주차중재시스템은 주차구역에 대하여 이중사용을 장려: 거주자 및 종사자가 같은 주차공간을 사용함.

○ 초- 단기간주차 운영

- 헨트에는 다양한 'kiss-&-ride'라는 적재 및 하차를 위한 주차공간이 따로 지정되어 있음. 이 주차공간은 초-단기간주차공간('ultra-short-term parking')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데,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음
 - 평일오전 7시부터 오후7시까지, 녹색구역에서는 최대30분까지 주차가 가능하며, 다른 구역에서는 최대15분까지 주차 가능.
 - 적색, 주황색, 그리고 황색구역에서는 하루에 15분주차가 2번 가능하다. 또한 녹색구역에서는 최대30분 주차가 하루에 2번까지 가능.
 - 주차관리인의 확인을 위해서, 등록번호판에 별도로 표시를 해야만 한다. 이 공간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차미터에 자신의 주차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함. 만약, 그날 제공되는 무료 주차시간을 전부 사용했다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만 함.



○ 주차미터기의 사용

- 주차미터는 디지털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차량등록번호(번호)를 입력한다면, 주차미터의 디지털 화면에는 이용가능한 주차시간이 자동으로 나타남. 그후, 요금을 지불하면,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주차티켓을 별도로 차량에 끼워둘 필요가 없음.



3) 유료로 기본으로 하는 파리의 주차정책

○ 유료로 기본으로 하는 파리 주차정책

- 2018년1월부터, 파리지역은 새로운 주차정책을 도입했음. 주요한 첫 번째 차이는 '주차는 공공공간을 차지하는 행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임. 주차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은

모든 유료주차서비스 (사전결제 및 사후결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음. 더욱이, 이러한 인식은 '주차서비스는 지방정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야만 한다는 점과 지역내 이동성 신장을 위해서 징수한 주차요금이 세금재원으로 활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파리의주차요금체계

- 파리의 주차서비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 '탄소배출량적음'이라는 부착물을 가지고 있는 차량만 이용 가능한 무료주차와 거주민과 방문자에게 부과하는 유료주차임.
- 파리 거주민을 위한 주차권은 1일 1.5유로 또는 7일 동안 9유로의 가격으로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임. 또한 정기권도 있는데 1년동안 45유로, 3년동안 90유로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 방문객을 위한 주차는 티켓발매기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최근의 주차정책은 최대6시간까지의 시간단위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주차요금은 파리 주변부에 비해 업무중심지구가 2배의 가격이 부과됨. 또한 지역에 따라서 최대가능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음.

DURÉE	DU 1 ^{ER} AU 11 ^E	DU 12 ^E AU 20 ^E
1 h	4 €	2,4 €
2 h	8 €	4,8 €
3 h	16 €	9,6 €
4 h	26 €	16,8 €
5 h	38 €	25,4 €
6 h	50 €	35 €

4) 시사점

- 도시마다 승용차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은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의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승용차수요를 관리의 필요성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도 고유한 주차정책을 수립하여 승용차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때 헨트시와 파리시의 주차정책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해 선임연구위원 (2149-1117)